

200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I. 세계경제 전망

미국, 연착륙 가능성 높아

1991년 이후 장기호황을 지속해 왔던 미국경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최근까지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의 3.9%에 이어 1999년 1/4분기에도 3.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동년 2/4분기에는 1.9%로 하락하여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3/4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5.5%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이러한 견해가 상당 정도 퇴색되어 있는 상태다.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려 있다. 낙관론(Zuckerman 등 이른바 신경제론자)은 미국의 높은 노동생산성, 정보통신 혁명, 물가안정 등으로 인하여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이며, 둔화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둔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관론(Krugman 등)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경직된 노동시장, 주식시장의 거품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려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2000년에는 장기호황에 따른 조정 현상으로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져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및 금리안정이 지속되고, 여타 세계지역의 경기호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이른바 연착륙(softlanding)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IMF와 OECD는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1999년에 3%대 후반에서 2000년에는 각각 2.7%, 3.1%로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EFA도 2000년에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회복세 가시화 전망

일본경제는 1998년 -2.8%의 성장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예상을 뒤엎고 1.5%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으며, 2/4분기에도 1.0%의 성장을 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동년 3/4분기 성장률이 -1.0%로 3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가 완전한 회복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소비 부진과 공공투자 및 주택투자의 경기부양 효과 약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 11월 민간수요를 부양하고 2000년 이후 경기회복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 18조엔 규모의 經濟新生對策을 확정·발표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



은기운 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 산업자원부 장관자문관 }

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일본경제는 2000년에는 본격 회복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1999년의 1.0%에서 2000년에는 1.5%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OECD와 WEFA는 2000년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1.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제외, 여타 지역 회복세 지속

EU경제는 1999년 4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와 개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면서 1999년 중반 이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1999년 11월 4일에는 ECB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리를 오히려 인상한 바 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0년에도 EU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져 2%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는 1999년 들어 경제개혁, 무역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으로써 5%를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성장률이 1998년 -9.8%에서 1999년 1.4%로 회복될 것이며, 2000년에는 3.6%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남미국들은 1999년에 브라질의 금융위기로 외환시장이 불안정하여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0년에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재정적자 지속,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신뢰도 하락 등으로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고 내수가 급감하여 1998년에 -4.6% 성장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경제구조개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회복 등 대내외 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IMF는 97년 8.8%, 98년 7.8%, 99년 6.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2000년에는 6.0%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단위 : %)

	1998	1999		2000			
	IMF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세계성장 (교역량)	2.5 (3.6)	3.0 (3.7)	2.8 (4.9)	2.7 (-)	3.5 (6.2)	2.9 (7.1)	2.9 (-)
미국	3.9	3.7	3.8	4.1	2.6	3.1	2.3
일본	-2.8	1.0	1.4	0.8	1.5	1.4	1.4
EU	2.8	2.1	2.1	1.9	2.8	2.8	2.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9

교역량 증가, 엔화강세 지속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세계교역은 1999년에 1998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에는 EU, 아시아 및 일본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6% 이상의 높은 교역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중동 등 개도국의 수입증가율이 선진국의 수입증가율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1998년 연평균 131엔선을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1999년 7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11월 26일 한때 4년만에 최저치인 101.25엔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본 외환당국은 1999년 6월 10일 이후 9월까지의 사이에 300억달러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였으며, 엔/달러 환율의 100엔선 돌파를 목전에 둔 11월 29일과 30일 양일에도 70억달러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아직 불안정하여 당분간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100엔대 초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4/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일본기업들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0년 3월에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4분기 성장률은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전기비 성장률에 나타나는 속성장 플러스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계연도 마감시한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일본기업들의 달러화매각이 늘어 엔화가 강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엔화강세의 또 다른 근거로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1년에 균형부근으로까지 축소되었으나 그 이후 적자가 다시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OECD전망에 의하면 GDP에 대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999년의 3.7%에서 2000년에 4.2%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2000년에 엔화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은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미국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으며, 급격한 엔화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엔/달러 환율은 99년 평균 114엔에서 2000년에는 10% 정도 하락한 평균 103엔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유가, 2/4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

1999년 4월 OPEC의 원유감산 이행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온 국제유가는 10월초 잠시 하락세를 보인 적도 있으나 그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11월 하순에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UN의 6개월 원유수출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시사했던 이라크가 12월 초 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라크의 석유재개 방침이 발표되면서 유가상승세는 일단 한풀 꺾인 상태이다.

유가는 감산합의 시한인 2000년 3월말까지 현수준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 감산시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가격상승에 따른 조정 현상과 OPEC국가들간의 공조 와해 가능성 등으로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II. 국내경제 전망

1999년에는 당초 예상 이상의 고성장

한국경제는 1998년 8월경에 바닥을 통과한 후 회복세를 지속하여 1999년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초 한국정부와 IMF가 합의할 때만 해도 1999년중 2% 정도의 성장을 전망했던 점을 회상해 보면 경기회복세가 매우 빨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우선 기술적 반등(technical rebound) 요인이다. 1999년도 성장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1998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국내총생산이 5.8%나 줄었었다. 따라서 회복기의 1999년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재고요인이다. 1998년에는 기업들이 출하가 줄어든 이상으로 생산을 줄여 재고(생산자재품재고, 유통재고, 원자재재고, 농축산물재고 등)가 바닥을 드러냈고, 이것이 성장률을 급락시켰다. 그러나 1999년에는 생산확대로 재고감소폭이 크게 줄었으며, 이것이 성장률을 오히려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반등요인과 재고요인만이 1999년의 높은 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견인하는 세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와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이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 성장에 기여하였던 점도 중요하다. 소비는 사람들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증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1999년 3/4분기 이후 이미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 설비투자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수준의 90% 정도에 그치지만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도 처음에는 운송장비 투자가 주류였으나 점차 기계,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도 엔고와 세계경기호조,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성장률 하락

2000년에는 성장률이 1999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99년에는 높은 성장률로 국내총생산이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2000년에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요소인 소비나 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줄곧 부진한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가 2000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거래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1999년만큼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고도 1999년말이면 어느 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0년에 재고가 증가함으로써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별로 2000년도 전망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성장률이 7%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5~7%, 설비투자는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보다 민간연구기관이 증가율을 다소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런데 2000년에 성장률이 1999년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하여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2000년은 성장률에서 거품요인(기술적 반등요인)이 제거되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감으로써 하락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수준 자체는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모두 여섯번의 경기순환을 경험하고 현재는 일곱번째 경기확장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과거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된 기간이 평균 35개월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한국경제는 특별한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한 적어도 2001년 상반기까지는 확장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미국이 1991년 이후 과거 경기순환 패턴을 깨고 9년째 장기호황을 지속해 온 것처럼, 한국경제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지식·정보·기술이 집약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산업이 발전할 경우 확장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1999년에 수출은 반도체, PC, LCD, 휴대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1998년에 비하여 8%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국내경기 확장에다 유가 상승 등으로 27%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5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였다.

산업연구원(KIET) 전망에 의하면 2000년도 수출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회복과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1999년 정도의 증가율(8% 전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세 확산에 따라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17% 전후)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1999년보다 상당폭 줄어든 1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1996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단가하락 현상이 최근 많이 완화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가상승은 원화절상에다 세계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수입단가는 유가상승에다 세계수요증가로 1999년 3/4분기부터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2000년에도 수입단가 상승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며, 소득수지는 1999년중 만기도래한 외채의 일부 상환 및 금리의 제조정에 따라 2000년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1999년의 250억달러 정도의 흑자에서 2000년에는 100억달러 초반으로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물가 상승, 원화는 절상

1998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낸 금리는 1999년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4월 20일에는 회사채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7.2%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금리가 다소 불안해지고 특히 대우사태가 표면화된 7월 하순 이후 회사채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 9월 중순에는 10.8%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정부가 대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채권매입에 적극 나섬으로써 10월 하순에 금리가 다시 8%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하여 수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함으로써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향후 금리는 정부의 안정기조 유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승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 회사채수익률은 평균 11%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1999년중 상당히 축소되어 2000년에는 회사채발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경기회복세 확산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0년에도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1999년 평균 1,180원 정도에서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화절상은 경상수지흑자 지속, 외국인의 직·간 접투자 확대, 국제

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등의 현상이 200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1999년중에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을 이룩할 것이나, 2000년에는 3% 전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확산에 따라 수요측면의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할 것인데다, 유가상승과 임금상승 등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코스트 푸쉬 요인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별 2000년도 한국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실질GDP증가율			경상수지 (억달러)	회사채수익률 (평균)	원/달러 환율 (평균)	소비자 물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KIET	7.0	6.7	19.3	3.3	117	11.1	1,080	3.0
KDI	7.8	7.0	15.7	5.5	126	-	-	3.2
LG경제연구원	6.7	5.8	11.0	9.2	121	10.5	1,100	3.5

전자·정보기기 산업 고성장 전망

가전,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전자, 정보기기 산업은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혁명과 디지털시대 개막 등 세기가 바뀌면서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동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은 디지털 TV 등 디지털제품의 수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확산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을 제외한 기존제품의 경우 시장 접근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 및 노트북PC 등 PC본체 및 17인치 이상의 모니터, 대용량 HDD, 고속 CD-ROM 드라이브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도 공공부문 및 교육정보화 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관련 수요증가와 램버스 D램 확대 등을 배경으로 물량면에서 높은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가격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64메가에서 128메가 등 상위급으로의 세대교체로 인하여 지난해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기기의 경우 통신망의 고도화와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관련 분야 투자확대로 내수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시장다변화 노력과 제품고부가가치화 등으로 CDMA용 이동통신장비, 단말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